



## 제2회 “농산어촌 청년희망 현장톡톡” 토론회 결과

### 1. 개요

□ (일시·장소) '19. 11.21(목) 14:00~17:00 / 강원 홍천 용오름체험휴양마을

\* 강원 홍천군 서석면 검단길 263(검산리 326-1)

□ 참석인원 : 총 16명

- (외부) 강원 및 홍천 공무원, 강원 및 홍천지역 청년 등 9명
- (내부) 농특위 농산어촌청년희망위원회 박경위원장, 농산어촌청년희망 네트워크, KM플러스 이상민연구원, 농특위 사무국 임성규 팀장 등 7명

□ 주요 내용

- 강원도와 홍천군의 청년농업인 활성화 및 육성 정책 발표
  - 강원 청년농업인 육성여건 및 향후계획(강원 우태군주무관)
  - 홍천군 청년농 육성 계획(홍천 박광근주무관)
- 강원 및 홍천 청년들의 사례 발표
  - 용오름맥주마을협동조합 사례(홍천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사업단장 정운희)
  - 자연의 순수함을 담다(농업회사법인(주)푸르린 대표 이민서)
  - 정직한 농부의 마음으로 믿음을 키우는 룡야(농업회사법인 룡야 대표 박영민)
- 청년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해소방안 토론

### 2. 토론회 결과

□ (원주민 청년 지원)원주민청년이 배제되지 않는 정책마련 필요

- 귀농·귀촌 정책으로 외부청년을 유입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 승계농 등 원주민 청년계층이 배제되는 현상이 있음. 외부청년을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지역에 있는 청년이 유출되지 않는 것도 중요

\* 청년창업농지원사업 대상이 농업경영체 등록 3년차로 제한된 점 등

- 단순히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 등으로 지원을 제한하기 보다는 데이터 기반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정책 효과 제고 필요
- (기초생활 보장) 청년수당, 농업직불제, 초기 주거공간 제공 등
  - 청년들이 귀농·귀촌시 초기에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많아 정착할 때까지 기초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청년수당, 농업직불제 등 필요
  - 빈집 등을 활용하여 초기 정착시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
- (농촌 청년 네트워크 구축) 네트워크와 멘토링 제도 활성화 요청
  - 농촌에 또래 청년이 적어 청년들이 살기에 너무 외로운 사회가 되었음. 농촌청년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 필요
  - 청년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선배농부의 농사법 등 멘토링 제도 활성화 필요
- (홍천 청년농업지원제도 구조) 이원화된 지원 구조 일원화 필요
  - 현재 홍천군의 청년농 지원제도는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로 이원화 된 구조라서 청년지원에 혼선이 있으므로 향후 지원구조의 일원화 필요
- (기타 의견)
  - 지역에 청년이 없다보니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많은 일들이 소수 청년들에게 과중되는 경향이 있으며, 인구가 줄다보니 경제활동과 결혼의 어려움 등 정착하기에 어려운 여건임
  - 고령농의 은퇴 및 사망으로 인한 유휴 농지, 빈 건물이 다수 발생할 것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청년층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망
  - 강원도는 삼남지방에 비해 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강원도의 특징을 고려한 청년정책이 만들어 지면 좋겠음 \* 경작면적, 기후 등 열악한 상황

### 3. 향후계획

- 토론 결과는 농산어촌청년희망위원회 연구용역에 반영하여 의제로 논의